



부산여대학보

THE BUSAN WOMEN'S COLLEGE PRESS

성
창
예
실
의
절

제 247 호 2022년 12월 7일 (수)

■ 발행인 정영우 ■ 주간 김정희 ■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74) ■ 홈페이지 <http://www.bwc.ac.kr> ■ 전화 051)850-3296(FAX 겸용) ■ 인쇄 국제신문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면소개

- 2 학교소식
- 4 미래교육
- 5 학교축제
- 6 교수칼럼
- 8 학생칼럼
- 10 안전교육
- 11 문화
- 12 학과소식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재학생 동정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는 2022년 9월 17일에 개막된 『2022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부산시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일반부 생활댄스체조분야(스트릿댄스) 1위에 입상하는 쾌거와 함께 체조분야 일반부 1위, 전국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체조협회와 대전광역시체조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으며, 17개 시·도 선수 2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생활체육 축제로서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학생들은 부산시 체조분야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부산여자대학교의 저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사회적 가치실현 융·복합 봉사활동

부산여자대학교(총장 정영우)는 22일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6개 학과의 재학생이 참여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학과, 미용과,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호텔제과제빵과 재학생 및 지도교수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광안리 해변을 방문한 부산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간호학과는 혈압·혈당 측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미용과는 네일아트,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는 K-POP댄스와 한국무용, 빨리댄스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였다.

유아교육과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아이클레이 체험을 치위생과는 0~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칫솔질 교육, 호텔제과제빵과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파운드케이크 나눔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강화정 혁신지원사업단장은 “학생들이 각 학과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융·복합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영구청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 공동협력해서 진행되었다.

부산여자대학교, “제1회 친환경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축제” 개최

부산여자대학교(총장 정영우) LINC 3.0사업단은 27일~28일 양일간 ‘제1회 친환경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축제’를 개최하였다. 동반성장축제에는 캡스톤디자인 전시회, 친환경 홍보마켓, ESG캠페인 및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캡스톤디자인 전시회에는 총 11개 팀이 참여하여 기업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교육 및 실습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행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캡스톤디자인 주제는 대학 특화분야인 ‘Local Tour / Digital Information / Life Care’로 진행되어 ‘Metaverse / Health Care / Eco’와 같은 내용의 창의적인 결과물



을 전시하였다. 친환경 기업과 함께하는 홍보마켓에는 7개 기업(고유, 메이커에듀, 멜

로우디엘, 쓰리디에프, 움움디자인, 젠픽스, 팩인플)이 참여하여 ICC 특화분야별 지역문제 해결, 사업화, 사업운

영 모델 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친화경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대학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ESG캠페인에는 <플로깅 이벤트>와 <너의 ESG를 알려줘!>, <지구 지킴이 인스타 인증샷> 등의 내용으로 ESG 실천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LINC3.0사업단 장기열 단장은 “제1회 동반성장축제를 통해 학생, 교수, 산업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향후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여자대학교 LINC3.0사업단, '2022 산학협력 EXPO' 우수 참가상 등 수상



부산여자대학교 (총장 정영우) LINC3.0사업단(단장 장기열)은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산학협력 EXPO'(교육부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에서 우수성과전시관 진로체험 우수 참가상과 링크루트(LINC3.0 Recruit) 프로젝트에서 대상 및 장려상, 특별상 등 쾌거를 거두

었다.

부산여자대학교는 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산학협력 EXPO에서 로컬 브랜드 모모스커피와 바리스타과 학생들이 협력하여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였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모모스 커피의 시그니처 원두인 부산 블렌드를 활용한 음료를 선보여 로컬 스페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채로운 원두를 선정하여 커피 핸드드립 시연 및 체험을 통해 우수성과 전시관 시상에서 진로체험 우수 참가상을 수상하였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인 '링크루트(LINC3.0 Recruit)'에서는 미용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협약산업체인 ㈜리

차드프로헤어의 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고, 전문 면접관들의 평가에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대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부산여자대학교의 위상을 알렸다. 또한 청중평가단의 현장 실시간 투표에 따라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학생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특별상인 전문대 LINC 3.0 협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이루었다.

LINC3.0 사업단 장기열 단장은 "이번 2022 산학협력 EXPO를 통해 부산여자대학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산학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친환경 ICC와 친환경 실천 산업체 7개사와 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기업협업센터(ICC)에서 지난 27일 친환경 기업 실천을 위한 7개 기업(고유, 메이커에듀, 멜로우디

엘, 쓰리디에프, 유희디자인, ㈜팩픽스, (주)팩앤롤)과 산학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친환경 생태 기술 & 안전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과 ICC 특화분야(로컬관광, 디지털정보, 라이프케어)

의 지속가능발전 동반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세부 협약 내용으로 △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태 기술 및 안전 비즈니스 문제해결 △ 산학연계형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애로기술) 활동 △ 공용장비 활용을 위한 협업 및 공유 활성화 △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공동운영 △ 협약기관 구성원 간의 인적 교류 △ 산학협력 공유협업, 성과창출 및 확산 등 정보 교류 △ 기타 산학협력 관련 제반 사항 등이다.

협약 체결이후 LINC3.0 기업과의 공유협업 사업 성공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쓰리디에프 신동준 대표는 "친환경 및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품 중 사업화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어 공동의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업협업센터 장기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특화분야 산업체와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공유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협약 체결 산업체에서도 대학과 공동 사업진행에 동참해 주신다는 말에 동반성장을 위한 초석의 장이 되었다."라고 했다.

2022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단 발대식



우리대학은 16일 차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개최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재학생들에게 해외취업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에는 정영우 총장을 비롯하여 장보관 산학협력처장, 김순경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장, 선발된 25명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영어성적우

수자, 영어성적향상자, 해외인턴십 참가계획 PT발표대회의 프로세스로 총 25명을 선발하였으며, 필리핀 엔더런 대학에 2023년 1월에 출국하여 영어권 나라의 해외인턴(기업실무) 및 어학연수, 해외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해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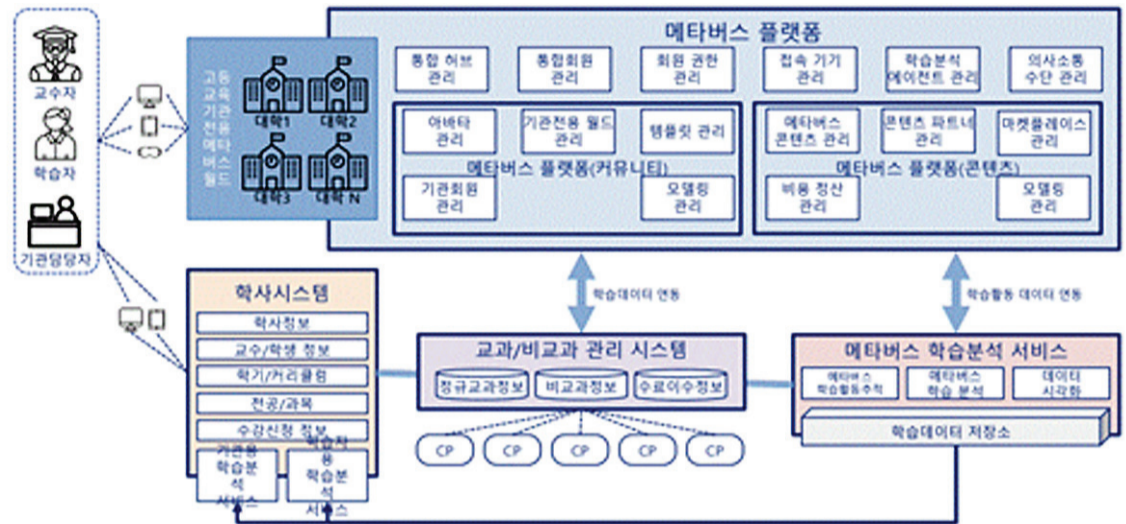
정영우 총장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실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혁신에 대하여



이상준
(학사지원처장/종합정보센터장)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메타버시티 플랫폼' 구성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대학에서도 '메타버스(Metaverse)' 열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고등직업교육 시스템을 단번에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뉴노멀이 된 원격교육에 대학구성원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의 실습과목을 대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에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실습 교육이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로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콘텐츠 제작 등 높은 자유도에 따른 학습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경험 및 학습흥미 증대에 따른 참여도가 유발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에서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메타버스 속 가상의 정체성으로 맺어지는 사회적 연결이 현실 세계보다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의 발생, 익명성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속 세계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나'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현실 세계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급성장한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적절한 법과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위험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기존 인터넷 시대와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 가치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2D 기반 온라인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준비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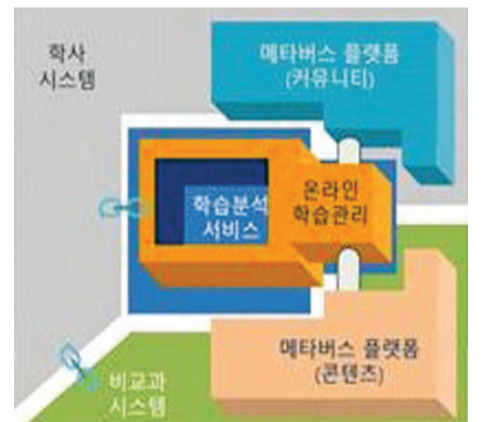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하였을 때 가치가 있을 것인지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타버스가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이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환경이 대학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비대면 교육과 비교와 교육 전반에 현장 중심교육에 활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의 한계점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세계관과 사용자의 창작기능이 부족하며 디지털 통화의 부재 및 사용자 연결기능이 없으며 일상의 기록보다는 특화된 기능 위주로 구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도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본 대학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혁신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63개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메타버시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과정 공동연구 △메타버스 활용 교육혁신모델과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학생중심 AR/VR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대학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장기 전략 로드맵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대학은 비대면 교육 질을 높이고 실감형 교육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감형 교육컨텐츠 운영의 필요성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감형 콘텐츠가 경험을 통한 학습을 더욱 확장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비용적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메타버시티 플랫폼 상에 LMS를 구축하여 연동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교육시장 선점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융합교육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향후 디지털 공유대학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계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지금 실감형 교육컨텐츠와 미래직업교육이 결합된 트렌디한 교육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이 구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방안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이 되며, 또래 학습자들 간의 동료 교수활동(Peer tutoring)이 필요한 활동에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융합 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학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뉴딜 2.0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감형 직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래에 어떠한 팬데믹 상황이 또다시 오더라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라서 더욱 행복했던 2022년 부산여대 행경축제

'3년만에 개최된' 2022년 부산여대 행경축제

10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진행된 축제에서는 각 학과 및 동아리 체험부스와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체험부스, 경품추첨, 인기가요 등 축제의 활기를 돋아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더불어 친환경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축제도 함께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축제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축제를 즐기지 못했던 모두들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뜻깊은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한번 더 축제의 시간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체험부스



먼저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된 체험부스입니다. 체험부스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 굿모닝 성모안과에서 안중합검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동아리에서 간호학과와 함께하는 건강증진활동, 안경광학과는 사랑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안경초음파 세척 및 클리너로 안경 닦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부스 취업타로 타로카드를 보면서 취업준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 ▶ 굿모닝 성모안과 부스 안중합검진과 스마일라시 우대가 상담 등을 통하여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라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상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동아리 건강증진활동으로 혈압재기, 혈당재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혈압재기와 혈당재기를 통하여 자기 건강을 잠깐이나마 체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 안경광학과 눈사랑 안경 초음파 세척 및 클리너로 안경 닦기!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안경관리를 보다 정확한 관리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놀이 체험존 & 청춘교복 / 웨딩드레스 체험존



다촌관에서 진행된 전통놀이 체험존 & 청춘교복 / 웨딩드레스 대여 체험 행사입니다. 전통놀이 체험존에서는 제기, 팽이, 비석 전통놀이를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락실, 컴퓨터 게임이 많은 시대지만 옛날의 활동적인 전통놀이를 하며 잠시나마 땀 흘리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청춘교복 대여에서는 바지교복과 치마교복, 교련복 세라복 등 옛 시대에서 볼 수 있던 교복을 착용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복고풍의 교련복과 세라복을 입으면서 그때 그시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겠죠? 웨딩드레스 체험에서는 드레스부터 화관, 코스지까지 착용하여 정말 신부가 된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1회 친환경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축제



다촌전시실에서 진행된 동반성장 축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교육/실습기간 동안 부산여대 학우들이 배운 실습내용과 기업이 협업하여 수행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간호학과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병원 애로사항 해결, 미용학과 - 친환경 두피마사지 개발, 사회복지계열 - 환경을 이용한 놀이프로그램/도구 개발 등 비리스타과, 반려동물학과,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라이프케어 아카데미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기업과 함께하는 홍보마켓도 참여하여 창의적인 수행결과물들을 관람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BWC 인기가요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BWC 인기가요!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 학과들에서 꾸며준 무대가 대단했는데요. 학과 대표들, 축제를 즐기러온 손님까지 무대에 올라가 댄스를 추는 멋진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축하공연으로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에서 보여준 무대 활약은 정말 방송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멋졌습니다. 모두들 너무 잘했지만 대상은 하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대를 보여준 학우분들 모두 대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두범
(아동보육과 교수)

회복탄력성과 부모연습

을 군자(君子)라 하며, 덕보다 재주가 더 많은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하고, 덕도 재주도 없는 사람을 우인(愚人)이라 한다.” 여기서 덕은 인격적 능력 또는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한다.

자녀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다.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유'란 어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자유는 다름 아닌 '선택'이다. '이걸 해! 저걸 해!' 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다. 그게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다.

부모가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아이의 자아가 생겨난다. 아이에게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삶을 헤쳐 나갈 힘이 생긴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헤쳐 가는 삶. 자녀에게 그걸 주라.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라. 그게 자유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등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과 욕망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말라. 아이를 독립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노자는 "생지축지 생이불유(生之畜之 生而不有)"를 말한다. 나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유대인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빌린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아이에게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마음의 근육은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릴 때 자제력이 컸던 아이가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얘기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은 유치원에 다니는 4-6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 마시멜로 한 개가 놓여 있는 접시를 보여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이 잠깐(15분) 나갔다가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 더 줄게."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다. 그러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었고 참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간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도 있었는데,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서 눈을 감거나 딱 데 쳐다보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커서 청소년기에 인지능력과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했다. 심지어 30년 후의 건강상태(체질량 지수 기준)도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는 힘든 일을 겪어도 비교적 쉽게 훌훌 털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회복탄력성'이 높게 된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좌절에 낙담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상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말한다. 이것은 정신 건강과도 직결된다.

그럼 회복탄력성은 어떻게 얻게 될까? 타고난 성격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한다. 회복탄력성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교육방식과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부모가 자녀의 재능을 북돋워 주었다는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존경받는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업 지진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는 대학에 힘들게 들어갔고,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아 취직하기 어려웠지만 "너는 남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다"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격려가 인생의 나침반 구실을 했다.

유대인은 베스트(Best·최고)를 지향하지 않고, 유니크(Unique·독창성)를 지향한다. 아이의 성적을 보면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다. 한국의 교육은 베스트를 지향한다. 그래서 못하는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그러나 유대인은 다르다. 못하는 과목의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 세상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베스트는 한 반에 한 명만 나오지만, 유니크는 한 반의 모든 학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이 활기차고 즐거우려면 인생을 역경이나 좌절로부터 지켜줄 마음의 근육을 키워줘야 한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이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부럽다면 학원에 등록하는 것보다 자녀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부모 연습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당신에게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2010년 여론조사 때는 성공한 자녀교육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5.8%)가 가장 많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2.5%)가 그 다음이었다. 세 번째는 '명문대 진학'(22.1%)을 '성공한 자녀교육'으로 꼽았다. 하지만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자녀교육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4.1%)가 가장 많았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23.7%)가 그 다음이었다. 세 번째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1.0%)였다. 명문대 진학'을 성공한 자녀교육의 기준으로 꼽은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이제 '명문대 졸업장'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2010년과 2021년 여론조사 모두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성공한 자녀교육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다. 그럼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중국의 사마광(司馬光)이 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덕과 재주를 모두 갖춘 사람을 성인(聖人)이라 하고, 덕이 재주보다 더 많은 사람

부산의 커피와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대회



박보근
(바리스타과 학과장 교수)

나 크누첸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는 규정한 커피의 맛과 평가도 표에 따라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커피와 관련된 큰 이벤트중 하나를 들라면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WBC (World Barista Championship)를 들 수 있다. 이 대회는 2000년 모나코 몬테카를로부터 시작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로 바리스타(커피머신을 가지고 에스프레소, 밀크베버리지, 시그니처 메뉴를 시연하는 대회:전주연 2019년 우승), 컵 테이스터스(커피대회, 커피 맛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빠르게 찾아내는 대회: 추경하 2021년 우승, 주상민 2021년 3위, 문현관 2022년 우승), 커피 로스팅(커피를 볶는 대회), 라테아트(카페 라떼에서 볼 수 있는 커피안에 그림을 만들기 대회), 브루어스컵(핸드드립을 하는 대회), 커피 인 굿 스피릿(커피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음료를 만드는 대회) 등 6

종목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도쿄에서, 2017년 서울에서 WBC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14년 일본 이자키 히데오, 2016년 대만 버그 우, 2019년 한국 전주연등이 월드바리스타챔피언이 된 적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한국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를 처음 개최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부산여자대학교 바리스타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여고생 바리스타경진대회가 있고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관광전 행사에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에 바리스타부분이 있

으며 2022년(10월14일)부터는 컵테이스터(커피)부분이 추가되었다.

부산에서 커피와 관련된 축제는 영도커피페스티벌, 전포커피축제 등이 있으며 커피를 알리고 커피문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의 커피역사는 상당히 길다. 한국 최초로 1884년 민건호가 해운일록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이성훈, 부산학당) 현재 영도에서 1968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양디방도 있다. 부산에서 시작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컴포즈커피, 더벤티, 텐퍼센트 커피, 카페051, 하이오커피, 맨싱커피 등이 있고 이러한 영향아래 부산에서 커피와 관련된 여러 성과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주연, 추경하, 주상민, 문현관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커피에 관심이 또는 바리스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바리스타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탈리아어로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커피와 관련된 원두의 선택, 로스팅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볼 수 있다.

인얼스커피, 블랙업커피, 모모스커피, 브에네스커피, 카페데니스, 아너더미네스, 루트커피 등을 아는 분은 스페셜티커피를 잘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1974년 에르

봉사에 날개를 달아 함께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상탈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봉사'라는 이름표를 단 경우라면 설레면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여름에 실시된 봉사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라는 세계적 재난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나에게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수년간 라오스에서 해외봉사를 해 오신 교수님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사여서 더욱 뜻깊은' 일은 없을까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은 대학에 몸담고 있었고, 모두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을 갖춘 이들이었다.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고, 심폐소생술 교육봉사를 실시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후 여러 차례 의논 끝에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보편화 되어 이미 많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수혜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회가 적고, 교육 후 그 효과를 제대로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선정하였다. 사실 프놈펜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로 나에게 친근한 이미지였으며,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만으로도 벌써 내 가슴은 벌렁이고 있었다.



캄보디아는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며 ODA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접국인 태국과 베트남 등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인간개발지수가 낮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상재목표인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좀 더 조사해보니 캄보디아 국민의 사망원인 중 뇌졸중이 13.3%, 허혈성 심장질환이 10.3%로 뇌혈관과 심장질환의 유병률 증가가 심정지에 의한 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과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의 교육봉사활동의 방향성과 부합되는 결과였다.

이번 교육봉사활동에서 고심한 것 중의 하나는 대상자 선정과 이들과의 접촉방법이었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큰 난관이었다. 이때 우리에게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현지인들과의 접촉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준 곳이 NGO 단체인 '코션'이었다. 코션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호산나 학교의 초·중·고등학생, 정아예 보건소의 의료인과 관할 지역주민, 그리고 프놈펜 시에 거주하는 현지 한인들을 교육봉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



교육대상자로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것은 향후 심정지를 대하는 행위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건소 의료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 의료인에게 의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교육봉사 며칠 전 실제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처음 교육 계획 당시 약 300여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호응과 반응이 좋아 입소문을 타면서 최종 5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성공적인 교육봉사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번 교육봉사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의 하나는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현지인들의 교육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 이외에 구강보건, 손씻기, 환경호르몬 예방 등의 보건교육이 필요함이 파악되어 추가로 구성하고 준비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부산여대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의 빛나는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처음에 봉사활동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재학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준비과정에서 우리의 봉사활동 취지를 알게 된 학생들이 보건교육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동료교수님들과 의논한 끝에 이들이 합류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막강 파워 해외봉사팀'이 되었다. 봉사의 일정을 잡는 것에서부터 내용구성, 자료제작 및 활용, 사전연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팀원들과 상의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 & 보완하는 과정의 연속에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정을 소화하면서



도 우리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계 또한 무척이나 돈독해졌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의 방법, 팀원들과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배려를 배웠을 것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셀프리더십 또한 성장하였을 것이다. 나 또한 탄탄한 팀워크로 구성된 조직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비록 이번 교육봉사활동은 소수정예팀으로 구성되어 실행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전문화된 봉사활동이 정립되어 확산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우리의 교육봉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봉사보다 체계적이었으며 내용이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도 봉사활동에 대한 칭찬이 회자되고 있으며, 다른 학교와 지역에서도 교육을 희망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했던 마음을 찼던 감동으로 돌려받으니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오는 선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졸업 후 의료인이 되어서도 나눔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번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들은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 BT 등의 후원을 받았고 덕분에 자원 활용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봉사로 선(善)은 또 다른 선(善)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의 기회로 그 기회를 통한 기쁨의 선물을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희영(간호학과 교수)

제38대 총학생회장을 마무리하며



주은혜
유아교육과 3학년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총학생회장 주은혜입니다.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38대 총학생회 '윤슬'이 마지막 인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총학생회의 슬로건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총학생회'입니다.

이 슬로건에는 우리 총학생회에서는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며 여유있는 총학생회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올해 활동을 돌아해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해볼걸'이라는 마음과 함께 학우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에는 학우분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활동보다는 교통안전 캠페인, 크린캠퍼스 등 총학생회 내에서 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2학기에는 10월 말에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행경축제를 위해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재밌고 풍성하게 기획할 수 있을까?', '학우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와 같이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저희의 이런 노력에 보답해주듯 축제 당일,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 덕분에 축제의 활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총학생회 활동 중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가 열심히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기에 서툰 것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

여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학생회와 학우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지는 대학에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의 장을 열 수 있을거라는 믿음과 함께 다음 총학생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제38대 총학생회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다들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될 때까지



한유정
간호학과 3학년

나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간호학과에 합격하였다는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친한 친구들은 "와! 너 간호학과 합격했어?", "축하해!" 라고 말해주며 나를 아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공부는 커녕 놀기만 하던 내가 "간호학과에 가야

한다니..." 처음엔 막막했다. 부모님께 상의도 해보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국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정답은 대외활동이다. 대외활동을 하면서 스펙을 쌓아가자는 생각을 하였다. 1학년 때 반 대표에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낮을 많이 가리고 자신감이 없었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결국 1학년 때는 반 대표를 하지 못 하였고, 간호학과 전공 동아리인 나이팅게일 동아리를 가입하였고, 동아리 대표를 맡았다.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없었다. 1학년 때는 시험 주에 잠시 가서 만났던 기숙사 친구들이 전부였지만, 후로 갈 수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낮을 가리지만 장난기가 많고, 밝은 성격을 가진 탓에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자신감을 회복한 나는 2학년 때 반 대표 후보로 나갔고 당선되어 3학년

때까지 반 대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나이팅게일 동아리의 임원도 2학년, 3학년 때까지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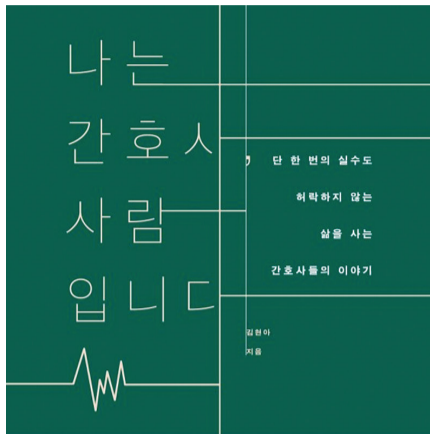
3학년 2학기 후반 쯤, 나는 부산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총학생회'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학교를 잘 이끌어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을 했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2023학년도 총학생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많이 부족한 나를 믿고 투표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렸다. 교수님들과의 면담에서도 "넌 잘 할 수 있을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감이 생겼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2학년 유효경



그렇게 우리는
간호사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저승사자와 맞서 싸운다

중환자실 간호사 21년,
전국을 돌린 '간호사 편지'의 주인공
김현아가 고백하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 땅의 간호사들 이야기

김현아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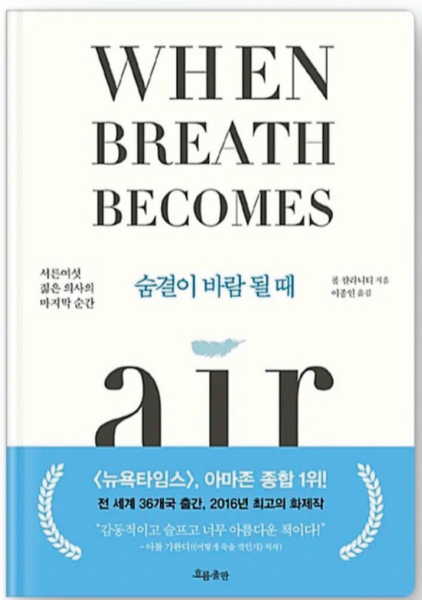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은 21년 2개월 동안 외과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쉼 없이 달려온 김현아 간호사의 절절한 고백이자 용기 있는 외침을 담은 책이다.

인권침해, 원하지 않는 근로 또는 강제 연장근로 경험, 턱없이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로실태 등 이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오롯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간호사이다. 김현아 간호사는 이 책을 통해 삶과 죽음이 전쟁 같은 사투를 벌이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업무, 현장,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늘 처진 어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가감 없이 그려냈다. 김현아 간호사는 2015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 당시 ‘간호사의 편지’로 전 국민을 감동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편지에는 “저승사자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내 환자에게는 메르스 못 오게”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읽고 간호사는 저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책 안에서 간호사들의 모습은 배가 너무 고과 환자의 밥을 먹은 신규 간호사, 생리대를 갈 시간조차 없어 피가 흠뻑 번져 나오던 간호사, 병원 행사에 빈 자리를 메우려는 지시에 퇴근도 못 하고 강연장으로 끌려간 간호사들까지 존중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았다. 또한 메르스 첫 사망자, 남자친구의 방화로 두 다리를 잃은 여성, 정신신체 노숙사,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다가 다친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며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있고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된다면 이러한 환자를 간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까지 겪고나서 우리의 곁에 간호사라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기에 내가 지금 간호학과라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뿌듯했다.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김현아 간호사님처럼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고싶다.

숨결이 바람 될 때

2학년 박혜인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책은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담은 2년 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그가 택한 것이 바로 ‘기록’이고 죽음을 앞둔 삶의 기록이 바로 이 책이 된 것이다.

책의 줄거리는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인 폴 칼라니티는 가족과의 평범한 휴가를 꿈꿀 수 있게 되고 또 전문의를 앞둔 레지던트 마지막해에 갑작스레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맞닥뜨리게 된다.

첫 검사에선 치료 가능한 변이라는 소식에 약물로 치료를 했지만, 그는 레지던트 생활을 마감하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 무리한 생활을 하다 새로운 종양이 생기게 되었고, 화학요법을 시행했으나 그의 딸이 태어나고 5개월차부터는 화학요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병세가 심각하게 나빠져 결국 그는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놔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겠다는 저자의 생각과 의지가 잘 드러나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저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멋있고 성숙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가 저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나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이 원망스럽고 두려워 외면하기 바빴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는 저자의 태도가 참 놀라웠고, ‘죽음은 언젠가 오는 것이니 그냥 죽기 전까지 계속 살아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이 책에 나오는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구절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언제든지 심폐소생술 익혀요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비좁은 골목에서 다수의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다. 국민들은 애도기간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였다. 처음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제보자들의 영상들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번 참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이다. 이태원 참사 후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가 급증하였다. 언제 어디서 겪을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이 없으면 의료인들도 쉽지 않은 게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심폐소생술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익혀두자.

■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 시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합니다.

■ 심폐소생술

1.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4.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2.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꼭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5cm, 압박속도: 분당 100~120회



6. 회복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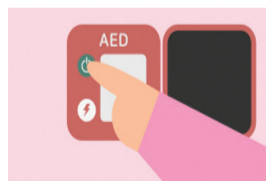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1.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4.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2.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3.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 중인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심장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서겠지

119가 와서 살려주겠지 생각하지 않고

위의 방법을 숙지하고 익힌 뒤 인명구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세요.



심정지 환자가 내 가족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추천영화

영화 <올빼미>



영화 <압구정>



영화 <탄생>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는 어의 '이형익'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간다. 그 무렵,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인조'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던 어느 밤,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진실을 알리려는 찰나 더 큰 비밀과 음모가 드러나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다. 아들의 죽음 후 '인조'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하여 폭주하기 시작하고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경수'로 인해 관련된 인물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나한테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 샘솟는 사업 아이디어와 타고난 말빨의 압구정 토박이 '대국'(마동석)은 한때 잘나가던 실력 TOP 성형외과 의사 '지우'(정경호)를 만나게 된다. 재기를 꿈꾸는 그의 욕심과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본 '대국'은 일생일대의 사업 수완을 발휘할 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대국'은 남다른 추진력으로 '지우'의 실력, 압구정 인사 '미정'(오나라)의 정보력, 압구정 큰 손 '태천'(최병모)의 자본, 그리고 압구정 황금줄 '구옥'(오연서)의 인맥을 한데 모아 압구정을 대표하는 성형외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뷰티.도시.를 꿈꾸는데... '형이 싹 다 꾸며 줄게. 뭘 말인지 알지?"

1845년, 조선 근대의 문을 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모험 호기심 많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청년 김대건.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라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학생 동기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나선다. 나라 안팎으로 외세의 침략이 계속되고 아편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 김대건은 바다와 육지를 종횡무진 누비며 마침내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다! '탄생'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갈망과 감동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전 세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전망이다.

12월 별자리 운세



물병자리 (01.21 ~ 02.18)



다소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추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군요. 여는 때보다 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 성과도 기대만큼 크지 못할 것입니다.

물고기자리 (2.19 ~ 3.20)



주변 사람과 잦은 마찰에 시달릴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뚜렷이 당신이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습니다.

양자리 (3.21 ~ 4.19)



당신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해도 되도록이면 거절하는 것이 당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황소자리 (4.20 ~ 5.20)



무엇을 하든 길이 트이는 한 달입니다. 누구와 일을 도모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조금만 마음만 다스린다면 당신에게 득이 됩니다. 행운은 당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으니 기분 좋은 한 달입니다.

쌍둥이자리 (5.21 ~ 6.21)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한 달입니다. 타인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위험이 있으니 비록 지금은 솔깃하게 들린다고 해도 몇 수 앞을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게자리 (6.22 ~ 7.22)



일보다는 여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은 한 달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도 무방한 시간입니다.

사자자리 (7.23 ~ 8.22)



한 번 뜻을 정했다면, 그 길로 쪽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시기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잦은 기회가 아니니 지금 물러서면 후회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이동수가 있어요.

처녀자리 (8.23 ~ 9.23)



긍정적이고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소유하고, 겸손함의 미덕을 함께 지니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대중 앞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칭자리 (9.24 ~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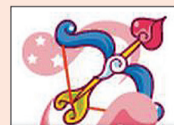
호감을 갖게 되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한 달입니다. 여러모로 당신과 어울리는 짝을 만나게 되니, 당신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물건을 잃어버릴 운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에 대해서 다른 때 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 있으니 혹여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수자리 (11.23 ~ 12.24)



용두사미라는 말이 상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장대했으나 마무리에 충실치 못하여 흐지부지 끝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염소자리 (12.25 ~ 1.20)



완벽하게 일을 끝마쳤다고 생각했으나, 뒤돌아 찬찬히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허점이 발견되는 한 달입니다. 일을 모두 끝마쳤다고 자축하고 안심하기 전에, 두번씩 세번씩 다시 되돌아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022년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대면으로!



부산여자대학교(총장 정영우) 간호학과에서는 지난 9월 29일(목) 오후 2시에 다촌문화관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이어받는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하 행사)을 실시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나이팅게일 여사의 정신을 기리며, 간호사로서의 간호 윤리와 원칙을 맹세하는 촛불의식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선서생 대표 4명은 대면으로 참석하고, 그 외 선서생들은 가정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인 Google Meet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나선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시대 3년째를 맞는 올해는 2학년 선서생 193명이 대면으로 참석하여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핵심간호역량 함양을 위해 임상으로 나아가는 예비간호사로서의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짐하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1학년 재학생들은 2학년 선배들의 나이팅게일 선서 장면을 바라보면서 1년 후 이 자리에서 세계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꿈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간호학생 휘장 수여를 시작으로 촛불의식, 나이팅게일선서문 낭독을 비롯하

여 김경남 학과장의 식사, 정영우 부산여자대학교 총장님의 격려사, 황지원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님의 축사, 선물 증정식, 장학금 전달식 및 1학년 학생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영우 총장님은 '나이팅게일 선서식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며 정진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김경남 간호학과장은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선서생들이 앞으로 22학점 이상의 임상실습을 진행하면서 간호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인데,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간호하는 진정한 간호사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편집후기 2022년 마지막 신문을 작업을 하었는데 코로나로 못했던 나이팅게일 선서식과 학교 축제가 큰 행사로 열려 기사를 쓰는데 더욱 재미있었던 거 같습니다. 1학년 기자들과 면 편집을 하면서 사진 스케치와 학교 관련 기사를 찾아봄으로서 학교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신문 제작 후 학보사 활동을 마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학보사 활동으로 우리 학교 신문을 직접 제작하고 방문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운 점도 많아 의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박서연 기자-



원고모집 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수필, 시, 비평문, 기행문, 사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처 : 학보사메일: hakbo@bwc.ac.kr / Tel:051.850.3296

신문 후기 모집 학보사에서는 교내 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신문에 대한 다양한 평가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후기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한글문서로 500자 내외의 글을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선정된 글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보메일 : hakbo@bwc.ac.kr